

양돈에 남다른 애정 보여주는 정은동 홍성농촌지도소장

- 취재 : 이 병 석 -

양돈산업의 외형액은 약 1조 7천 억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사료산업과 기자재, 동물약품 등의 규모를 합하면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양돈업에 종사하는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업계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 모든 관련 종사자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상호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만이 양돈산업은 별 문제없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홍성지역내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는 홍성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소장을 본회 김건태 홍성지부장의 소개로 만나보았다.



▲홍성군 농촌지도소 정은동 소장

홍성군 농촌지도소 정은동 소장은 이 말로 기자와의 대화의 물꼬를 텃다. 정소장은 기자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홍성군내 양돈산업의 발전방향과 활로 모색 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년(98년)부터 홍성군내에 200억을 들여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료업체, 종돈장, 가축위생연구소등의 제반여건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산농가들이 하나의 구심체를 결성한 후 판매채인을 확보하고 있는 유통업체만 확보하여 주식회사 형태

양돈업에 비전 제시하는 정소장

우리 홍성군은 전체 농업소득의 48%가 축산 분야이며, 그 중 양돈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 힘을 합친다면 지금보다 더욱 알찬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며 정소장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홍성지역 양돈인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정은동 소장은 영농교육과 지역 양돈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계속적인 교육과 조언 등을 해주고 있다. 이에 조언을 얻어 서산, 예산, 보령, 홍성 등의 20여 농가가 모임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정소장은 지역 양돈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정소장은 지난 60년대초 건국대 축산학과 재학시절 교수님 추천으로 파주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2주동안 실습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일명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짬밥을 가져다가 돼지를 사육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정소장은 이렇게 처음 경험하는 상황과 역겨운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고 돼지에 먹이를 주면서 짬밥에 적응을 하고 나름대로 돼지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실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소장은 바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군에서 급식하는 식사(그 당시 훈련소에서는 밥에 국을 부어주는 급식형태였음)를 전혀 거부감 없이 잘 할 수 있었다 한다.

이렇게 해서 양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비록 공무원이 되어 직접 양돈은 하지는 않지만, 양돈인이 잘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람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양돈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분만에서부터 분뇨처리하는 부분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다. 사진은 태양열을 이용한 자돈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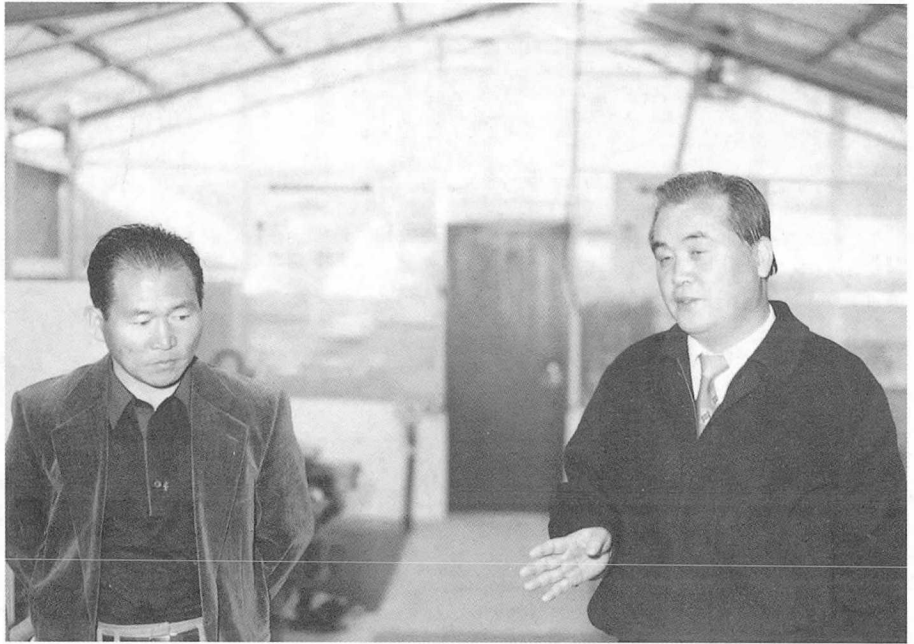
을 느낀다고 한다.

농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도소내 시설 설치해

정은동 소장은 지난 67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31년째 공무원으로 외길을 걸어 왔으며, 지난 92년 7월 1일부로 고향인 홍성으로 돌아와 홍성군 농촌지도소장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정소장은 홍성으로 온 이후 지역내 양돈뿐만 아니라 축산분야 전반에 관한 연구와 원예, 화훼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 농민들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작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목을 직접 심어서 농가가 이를 직접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돈분야에서는 분만에서부터 분뇨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한곳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아 양돈농가들이 직접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았다.

또한 지도소내 3층짜리 생활관을 새로 건축하

여 1층은 농촌의 현대화 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중고등학생들의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3층은 예식장과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가지 교육과 농민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 놓았다. 특히 예



▲정은동소장(우측)은 양축가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기위해 항상 연구하며, 양축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여러가지 사항 등을 논의한다. 사진은 본회 김건태 지부장과 대담하고 있는 모습이다.

식장 이용은 농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예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식사를 하면서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정소장은 또한 양돈농가들이 더욱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값싸고 우수한 정액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98년)에는 예산 2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인공수정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도 세워논 상태라 한다.

농민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

지난 31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하고 싶어도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여기저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조심스러워야 하는 신분유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정소장은 양돈산업의 집단화가 살길이 아니나

며, 지역내 양돈인들을 하나로 묶는 주식회사로의 형태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특히 현재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문제도 정부는 정부대로 연구를 계속 해야겠지만 양돈농가도 이를 경영개념에 포함시켜 환경오염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양돈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다.

“저 자신은 돈을 많이 못벌지만 기술개선과 보급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가 속해있는 홍성군내 모든 농가가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정소장의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홍성지역 농민들은 정소장이 은퇴할때까지 홍성지역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養豚**

